



제174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(062)2200-500·222-8111

光州日報 Weekend



www.kwangju.co.kr

2006년 4월 29일 (음력 4월 2일) 토요일

The Kwangju Ilbo

光州日報와 함께

행복한 주말을

Weather

광주·전남 휴일 날씨

8(土)	9(日)
치자 맑아침 11 / 23°C	맑음 11 / 22°C

News

- 호남고속철 2개역 신설 ②
- '컴박사 판관' 정경현씨 ③
- 박희영, KLPGA 우승 ⑯



Jeollad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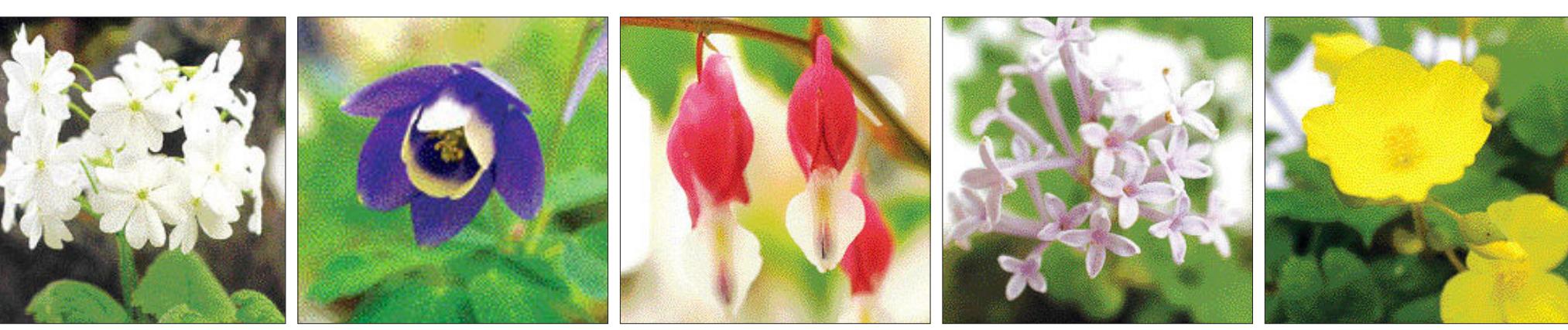
- 풍수 재물 넘치는 땅 강진 ⑦

Entertainment

- 복고풍 창법 '히트 예감' ⑧
- 강우석 감독 신작 '한반도' ⑨

Sports

- 나주대학 여자 야구단 ⑯



한국야생화전...내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

한국의 봄 야생화들이
한 자리에 모였다.한국야생화연구회는 30
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
관에서 '제4회 한국야생화
전'을 갖는다.이 전시회에는 21명의
회원들이 겨울 동안 가꾼
야생화 650점과 비롯 관련
작품 등 총 1천점이 선보이
고 있다.

/최현배기자 choi@

흰앵초·산매발톱꽃·금낭화...야생화의 세계로

"TV 끄니 가족이 보이네"

올해 중학교 2학년인 현경(여·14)이네
가족은 4년 전부터 TV를 보지 않는다. 현
경이가 TV에 빠져 학원에 가지 않는 일이
잦아지자 엄마 선향연(40·공무원·광주시
동구 운림동)과 TV 안테나선을 끊어버
리는 조치를 취한 결과다.

집착하던 TV를 볼 수 없던 현경이는 책
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. 대신 선씨는 1주
일에 한번은 DVD를 보여주거나 영화관에
데리고 가 갈증을 풀어줬다. 이후 최근하
면 TV 앞에서 리모콘을 돌리던 현경이 아
빠 역시 책과 친해졌고, 일감을 밀쳐둔 채
무의식적으로 TV에 앉은 했던 선씨도 저
녁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다.

박형철(45·광주시 서구 풍암동)씨네 가
족은 'TV 안보기'를 실천한 지 한달 남짓

과도한 시청은 비만 불러

정서 발달·학습에도 지장

1일부터 'TV안보기' 주간

한 초보다. 박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
도윤이가 휴소망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고
다니는 것을 보고 난감했다.

일주일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퀴즈프로그램
하나만 시청하는 박씨네 가족 역시 함께
운동과 산책을 하고, 대화하는 시간이 많
아졌으며 아이들은 책과 친구가 되었다.

최근 들어 'TV 안 보기'에 동참하는 가
정이 늘고 있다. 지난해 결성된 'TV 안보기'

기 시민모임'은 이같은 추세에 맞춰 오는 5
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동안을 'TV 안
보는 주간'으로 정했다. TV는 순간, 독서
는 한평생'이라는 주제의 캠페인도 전개할
계획이다. 'TV 안보기'를 실천하고 있는
가정들은 아이들이 '조절 능력'을 상실,
TV에 몰입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
했다. 과도한 TV 시청은 아이들의 비만을
초래하고 정서발달과 학습에도 부정적인
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.

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"어린이
가 TV를 1시간 보는 것은 피자 한쪽을 먹는
것과 같은 칼로리 섭취 효과가 있어 비
만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"는 연구 결과를
발표했었다. <2면으로 계속>

/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다.

닐라파이
짓씨는 태국
경찰에 의해
실종된 인권
변호사 남편
의 유지를

받들어 UN
에 '강제실종자 국제비준'을 제정토록
촉구, 지난달 태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'훌륭한 여성 인
권운동가'로 선정되기도 했다.

기념재단은 오는 5월 18일 이들에게 각각 상금
2만5천달러와 금장메달을 수여할 계획이다.
/임주형기자 jhlim@kwangju.co.kr

社告

고성 공룡엑스포·가야 역사탐방

5월 5, 6일 낙동강 유역

피웠던 곳으로 한민족은 물론 일
본의 고대문화의 성장지인 낙동
강 유역을 둘러볼 예정입니다.

광주일보사와 세계거석문화협
회(회장·유인학)는 오는 5월 5일
(어린이날·석가탄신일)부터 6일
이틀간 '고성 공룡엑스포와 가야
역사문화 탐방'을 실시합니다.

이번 탐방에서는 신라, 백제, 일본을
아우르는 가야문화를 꽂

■ 탐방 일시·장소

- 5월 5일 08:00 집합 (광주, 목포, 순천, 영암)
11:00 고령 대가야 박물관 및 고분단지
15:00 함안 박물관 (소가야 박물관)
16:30 김해 박물관 (금관가야)
- 5월 6일 09:00 고성 공룡엑스포
11:30 고성 고분군 (가야)
15:00 진주박물관 (조선전쟁 박물관)

■ 참가 대상

- ① 초등학교 3학년 - 고등학교 2학년
②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행할 것

■ 신청 기간

- 회비 : ① 부부 + 학생 1인 = 20만원
② 부모중 1인+학생 1인 = 15만원

■ 특전

- ① 탐방소감 제출자 중 우수작 3명 특별 시상
② 장기자랑 입선자 시상
③ 모든 참가자에게 어린이날 선물 증정

■ 신청

- 광주·목포 - 011-628-6965
영암 - 011-637-3839
장흥 - 011-9607-9232

■ 입금계좌

- 기업은행 228-007881-02-010

光州日報社·세계거석문화협회

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·작문·논술 공모

접수기간 : 4월 25일 ~ 5월 25일 까지

▶ 홈페이지 : www.kwangju.co.kr ▶ 팩스 : (062)220-0541, 222-8111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광주인권상에 조야·닐라파이짓 씨

(아프가니스탄)

(태국)

을 펼쳐 용기와 희망을 전해줬고, 닐라파이짓 씨
역시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과 차별로 고통받는 사
람들에게 '등불' 같은 역할을 수행, 공동 수상자로
선정했다"고 밝혔다.

아프가니스탄의 제헌의회 국회의원으로 활동
중인 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유린 실태를
국제사회에 고발하고,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
위한 운동을 전개해 지난해 노벨평화상으로부
터 '2005년 노벨평화상 1천명의 여성상'을 수상했



밀라이조야 양카닐라파이짓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5·18 기념재단(이사장 박석무)은 28일 제7회

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밀라이조야(28·사진 원쪽)씨와 태국의 양카나 닐라파이짓(49·오른쪽)씨 등 2명을 선정했다.

〈관련기사 3면〉

5·18 기념재단은 "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
들에게 문맹퇴치운동과 컴퓨터 교육, 의료사업 등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5·18 기념재단(이사장 박석무)은 28일 제7회

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밀라이조야(28·사진 원쪽)씨와 태국의 양카나 닐라파이짓(49·오른쪽)씨 등 2명을 선정했다.

〈관련기사 3면〉

5·18 기념재단은 "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
들에게 문맹퇴치운동과 컴퓨터 교육, 의료사업 등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5·18 기념재단(이사장 박석무)은 28일 제7회

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밀라이조야(28·사진 원쪽)씨와 태국의 양카나 닐라파이짓(49·오른쪽)씨 등 2명을 선정했다.

〈관련기사 3면〉

5·18 기념재단은 "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
들에게 문맹퇴치운동과 컴퓨터 교육, 의료사업 등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5·18 기념재단(이사장 박석무)은 28일 제7회

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밀라이조야(28·사진 원쪽)씨와 태국의 양카나 닐라파이짓(49·오른쪽)씨 등 2명을 선정했다.

〈관련기사 3면〉

5·18 기념재단은 "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
들에게 문맹퇴치운동과 컴퓨터 교육, 의료사업 등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5·18 기념재단(이사장 박석무)은 28일 제7회

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밀라이조야(28·사진 원쪽)씨와 태국의 양카나 닐라파이짓(49·오른쪽)씨 등 2명을 선정했다.

〈관련기사 3면〉

5·18 기념재단은 "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
들에게 문맹퇴치운동과 컴퓨터 교육, 의료사업 등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5·18 기념재단(이사장 박석무)은 28일 제7회

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밀라이조야(28·사진 원쪽)씨와 태국의 양카나 닐라파이짓(49·오른쪽)씨 등 2명을 선정했다.

〈관련기사 3면〉

5·18 기념재단은 "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
들에게 문맹퇴치운동과 컴퓨터 교육, 의료사업 등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5·18 기념재단(이사장 박석무)은 28일 제7회

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밀라이조야(28·사진 원쪽)씨와 태국의 양카나 닐라파이짓(49·오른쪽)씨 등 2명을 선정했다.

〈관련기사 3면〉

5·18 기념재단은 "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
들에게 문맹퇴치운동과 컴퓨터 교육, 의료사업 등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

5·18 기념재단(이사장 박석무)은 28일 제7회

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밀라이조야(28·사진 원쪽)씨와 태국의 양카나 닐라파이짓(49·오른쪽)씨 등 2명을 선정했다.

〈관련기사 3면〉

5·18 기념재단은 "조야씨는 아프가니스탄 여성
들에게 문맹퇴치운동과 컴퓨터 교육, 의료사업 등

5·18기념재단, 5월 18일 시상식